

2020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

농식품부, 14일부터... 농가 선택권 확대 등 위해 작년보다 시기 앞당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산 공공비축미 34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 톤을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은 농가 선택권 확대 및 편의를 위해 작년보다 매입 시기를 9일 앞당겼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로는 24만 톤을 매입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로는 10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시기는 산물벼가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포대벼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또한 농식품부는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2020년산 쌀 1만 톤을 매입한다. 아세안 10개국 원조용(아세안+3) 쌀 매입은 공공비축 매입과 함께 시행되며,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쌀 중에 1만 톤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방식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

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으로 매입한다. 벼 매입 직후 포대(40kg/조곡) 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벼 매입가격은 1등급 조곡 40kg 기준으로 6만5,750원이었다.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역별로 매입대상 벼 품종을 시·군별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약정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 제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시료를 채취(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 표본추출)하고, 농식품부가 지정한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검정(DNA 검사)을 시행하여 품종을 확인한다.

또한, 친환경 벼 5,000톤을 일반벼 특등가격으로 매입하며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잔류농약검사(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매입한 친환경 벼는 일

반벼와 구분 관리하며, 유기농업의 날(6월 2일)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친환경 벼 매입 가격은 특등급 조곡 40kg 기준으로 6만7,920원이었다.

마지막으로 쌀 수급조절을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매입물량을 우대 배정한다. 해당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 매입 우대 물량 5만 톤을 농식품부가 시·도를 통해 직접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방역수칙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수도권 2.5단계)로 격상된 위기 상황이다"며, "14일부터 시작하는 공공비축에 참여하는 농업인께서는 본인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기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는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농진청장, 김제 태풍 피해 농업현장 방문 점검

최근에 부임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축산영농조합법인 논공재배단지를 긴급 방문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후기 논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박준배 김제시장, 박경숙 전북농업기술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박준배 시장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의 김제방문을 환영하며 사상 최장 장마와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최근 3차례의 태풍에 의한 논작물 침관수 피해, 도복피해, 병해충 다발성 피해로 관내 농업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촌진흥청 차원의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축산영농조합 논공재배단지 영농현장을 점검하고, 우수품종 비교전시포장을 시찰하며, 풍 우수품종 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진흥청 관계자에 주문과 태풍 이후 지역별·작물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진흥청 차원의 비상체계를 가동하여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영농기술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호 외치는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들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들은 9일 전북도청 앞에서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하고 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연금, '4대 사회보험 교육' 비대면 운영

포털사이트서 신청·접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교육 일정〉

차수	신청 기간	교육 기간	수강인원
1	2020.9.9.(수) ~ 9.15.(화)	2020.9.21.(월) ~ 10.16.(금)	500명
2	2020.9.21.(월) ~ 10.16.(금)	2020.10.21.(수) ~ 11.13.(금)	500명 이상
3	2020.10.21.(수) ~ 11.13.(금)	2020.11.18.(수) ~ 12.11.(금)	500명 이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중소기업인들이 사회보험 업무를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매년 지자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4대 사회보험 기관과 함께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21일부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사회보험 신고방법'과

'4대 사회보험 자격관리 방법'으로 구성됐다.

1차 교육 접수는 9일부터 15일까지 포털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포털사이트 사업장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03년부터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공동으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4대 보험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모든 기관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원스

톱 민원신고 ▲국세청 등 11개 행정기관의 100종 자료 연계 및 공동 이용 ▲4대보험 통합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회보험 제도를 이해하고 각종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인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 '청년전북 뉴웨이브 홍보·마케팅 지원' 선정 완료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지난주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참여하는 업체와 청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청년전북 뉴웨이브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심사를 진행해 선정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청년전북 뉴웨이브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들이 소속 기업의 홍보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광고 등 홍보방안을 제안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청년전북 뉴웨이브 참여업체를 위

해 기획됐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언택트(비대면) 화상 발표평가 심사가 이루어졌다. 청년전북 뉴웨이브 참여 업체 중 31개 사업장이 신청해,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홍보 지원비용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업체 대표가 아닌 청년근로자들이 직접 본인의 회사에 대한 홍보기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청년근로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회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됐다.

사업에 참여한 한 청년근로자는 "코로나19로 매출감소에 힘들어하는 대표님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참여했다"며 "홍보기획을 준비하며 회사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도내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제공을 위한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진원 홈페이지 또는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진원 일자리팀 (063-280-4121~2)으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주민이 직접 꾸미는 아파트 화단

농촌진흥청, '손수 제작 화단 조성 기술' 개발 식물 크기별 배치·물관리 용이 식물 매트 등 포함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생활 속 자연 공간인 아파트 화단에 주민이 직접 꽃과 나무를 심어 새로 단장(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DIY(손수 제작) 화단 조성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아파트 정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비전문가인 주민들도 손쉽게 화단을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개발했다.

농진청이 지난해 실시한 아파트 단지 조경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아파트 정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쾌적한 공기·그늘 조성(77.2%), 자연경관 감상(75.0%), 주민들과 교류·만남의 장소(75.4%) 등으로 매우 높았다.

DIY 화단 조성 기술에는 ▲환경에 맞는 식물을 선택, 크기별로 배치할 수 있는 식물 설계 프로그램 ▲물관리와 토양 관리가 쉬운 식물 매트(지피매트) ▲주민 교육을 위한 DIY 화단 조성 안내서 등이 포함됐다.

식물 설계 프로그램은 관목류 57종, 덩굴성 식물 17종, 다년생 초본 식물 56종 등 204종의 식물 정보와 관리 방법을 담은 엑셀 프로그램이다. 이를 활용하면 비전문가인 일반인도 화단 크기와 조경 형태에 맞는 식물을 찾아 심는 순서와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지피매트는 뿌리 생장에 알맞은 토양층을 넣은 뒤 배배환경과 토양수분 요구도가 비슷한 식물을 한 판에 재배한 형태이다. 지피매트를

화단에 적용하면 물관리, 잡초 걱정 없이 완성도 있는 정원을 가꿀 수 있다. 식물을 심을 때 조그맣게 앉아 작업하는 수고를 덜고, 새 단장(리모델링)에 드는 시간도 3분의 1로 줄어든다. 지피매트가 지표면을 90% 이상 덮어 주는 덕분에 작업 전보다 토양 표면 온도는 5.3도 줄고, 잡초 발생률은 20% 이하로 감소한다.

기술 교육 안내서(매뉴얼)는 아파트 정원에 맞는 식물 종류와 설계·조성 방법, 지피매트 활용 방법, 물관리 기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진이 전주, 용인, 순천, 창원 지역 아파트 6곳 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주 1회 3~4시간씩 5회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아파트 정원에 대한 만족도는 16.9% 증가했고, 이웃과의 소통 만족도는 22.3%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안내서를 비대면 교육 동영상으로 제작, 올해 말 공개할 계획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명일 도시농업과장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주거환경에서 다양한 꽃과 나무를 가꾸고 볼 수 있는 아파트 화단은 주민들의 정서적 만족감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기술을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중기 추석 특별자금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지난해보다 2조 증액 10조원 규모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기요 본부장)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보다 2조원 증액된 10조원 규모의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자금 지원기간은 10월 16일까지이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자금 4조원, 기한연장 6조원씩 총 10조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금 용도는 기업의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 모두를 포함하며,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석 명절자금

특별우대금리 0.1%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대출상품에 따라 최고 1.5%의 우대금리를 제공기로 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장기요 본부장은 "금차 추석 명절자금 특별지원을 통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적기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고창한우, 이번 추석명절에도 '뜨다'

롯데백 본점 등서 절찬리 판매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사중)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민민천에 올랐던 고창한우를 이번 추석명절에도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안양점, 일산점, 관악점, 안산점, 전주점, 광주점에서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전국 9,700여개의 자사 편의점과 인터넷·SNS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세븐일레븐 전국매장에 배포될 공식 카탈로그에 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 등재돼 있다.

이번 명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조합원이 정성 들여 생산한 고창한우 72두를 도축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고창군은 세계적으로 청정지역을 상징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써 이곳에서 생산된 축산물인 만큼 소비자들에게 매우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고창군은 한반도 첫 수도라는 다투고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있는 고인돌 군락지와 람사르 습지,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이곳에서 생산된 한우를 드시는 소비자들은 고대부터 전해 오는 역사



적 기운과 건강하고 청량한 기운을 한껏 받으실 수 있다고 한다.

요즘은 음식문화가 양보다는 질 위주로 변하고 있다.

가축이 유해한 물질을 섭취하였는지, 또는 가축이 생애중 스트레스를 얼마나 적게 받았는지 까지 고려하고 있다.

인간이 고기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가축이 섭취했던 유해물질과 스트레스까지 인간에게 그대로 전이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고창부안축협은 가축사료를 TMR(섬유질 배합가공사료)에서 TMR(섬유질 완전혼합발효사료)로 한층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료공장을 증·개축하고 생산설비 현대화를 증설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